

□ 서평

『황우석 신화와 대한민국 과학』

김근배
역사비평사, 2007

김종영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김근배 교수의 『황우석 신화와 대한민국 과학』(이하 『신화와 과학』으로 지칭)은 황우석 사태에 대한 수년간의 방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탄생한 역작이다. 이 책이 앞으로 계속될 황우석 사태에 대한 연구에 있어 교과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제까지 출판된 책들이 황우석 사태에 있어 선악의 잣대를 전제로 황우석과 그 연구팀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면 『신화와 과학』은 이런 도덕적 평가에 다소 거리를 둔 채 황우석의 연구와 정치, 사회, 윤리간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물론 『신화와 과학』도 황우석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만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압도하지 않는다. 둘째, 황우석의 연구 궤도를 치밀하게 추적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변방의 과학자에서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과학자로 부상했는지를 과학 내적인 논리로 설명한다. 이전의 연구가 지나치게 과학 외부적 요인 즉 정치적, 경제적 이유들로 황우석 사태를 설명했다면 『신화와 과학』은 줄기세포를 둘러싼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김근배 교수는 황우석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논문들을 자세히 읽고 해석하는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가령 연구실 분위기의 전체적인 맥락과 인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저자들(특히 석사, 박사학위 논문)의 감사의 글까지도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이런 내적인 요인을 외적인 요인과 적절하고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신화와 과학』은 황우석 사태가 정치적인 이유로만 결코 설명될

수 없음을 말한다. 셋째, 저자가 말하듯이 이 책은 황우석 연구팀의 복제기술 발전 경로, 미궁에 빠진 영롱이와 진이의 진실, 연구 집단의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 호랑이 복제의 진실, 황우석과 시민단체와의 갈등 전개 등을 새롭게 밝혔다.¹⁾ 넷째, 『신화와 과학』은 단독 저자의 기술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인 그림을 보여준다. 이전의 책들은 대부분 여러 저자들에 의해 집필돼 파편화된 그림을 제시하였다. 물론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를 바라보는 장점은 있으나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김근배 교수는 황우석 사태에 대한 전문 학술 단행본을 최초로냄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명실상부한 권위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책은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1) 황우석의 성장과정과 연구에 대한 전기적인 내용 (1장, 2장), (2) 황우석 실험실과 연구에 대한 과학 내적인 내용 (5장, 7장, 8장, 9장), (3) 황우석 연구팀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네트워크 등의 과학 외적인 내용 (4장, 6장, 10장), (4)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정치적, 과학적, 사회적 배경 (각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 협력, 영향 등) 설명 (3장, 11장). 물론 각 장마다 과학 내적인 내용, 과학 외적인 내용,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기술되고 있지만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 이와 같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황우석 사태를 시간과 주제별로 교차시켜 설명하고 있다. 장의 제목들은 마치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1장에서 4장까지는 황우석과 그 연구팀의 초기 성장과정을 시간의 흐름별로 구성했다면 5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5장이 11장 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아니라 5장과 11장의 내용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구성은 황우석 사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독자에게 다소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중층적인 주제별 장 구성은 김근배 교수의 황우석 사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기도 한다. 과학적 내용 자체를 어느 누구보다도 자세히 이해하고 이것이 외부적인 요인들과 어떻게 얽여 있고 어떻게 해서 황우석 연구팀의 과학부정행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궁에 빠진 영롱이와 진이에 대한 진실을 황우석 연구팀 전체의 연구과정과 맥락

1) 연구논문 조작의 실체와 이유, 새튼과의 협력과 경쟁 부분들을 새롭게 밝혔다는 저자의 주장과 달리 평자는 다만 이 부분들에 있어 저자가 새로운 해석을 추가했다고 생각한다.

에 맞추어서 해석을 한 부분과 황우석 연구팀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평자는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설명은 과학지식 자체에 대한 치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근배 교수는 황우석 연구팀이 작성한 논문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해외 과학자들의 논문도 꼼꼼히 읽는 성실함으로 이러한 빼어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었다.

평자의 이 책에 대한 비판은 크게 이론적, 방법론적, 정치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화와 과학』은 방대한 경험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이론적인 논의가 전체적으로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과학사를 전공한 김근배 교수이기에 과도한 개념화와 이론화가 주는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과학기술학에서 제공하는 이론적 논의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규범과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 과학자의 물질적-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문제, 언론에서 과학의 표상에 관한 문제, 과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과학과 정치 등과 같은 문제들은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역들은 과학기술학에서 개념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한 부분들이지만 『신화와 과학』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과의 소통을 기울이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듯이 “과학-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중층적 연결이 황우석 사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있어서 분석적인 개념을 통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념화는 오로지 독자들에게 던져지는데, 독자는 이 책이 제공하는 방대한 자료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울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12장에서 황우석과 파스퇴르를 비교하면서 황우석의 실패 원인을 실험실의 데이터 부재에서 찾았는데 이는 라투르가 보여준 행위자-연결망 이론(특히 라투르의 『프랑스의 파스퇴르화』)을 개념적으로 비판하거나 비교할 중요한 접점이 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개념적, 이론적 빈약함은 이 책이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는 구실이 된다.

둘째, 이 책은 대부분의 자료가 기존에 출판된 책, 논문, 신문,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두어 방법론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기존의 자료들을 종합한 점은 탁월하지만 저자가 새롭게 발굴한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황우석 사태가 최근의 일이고 이 사태와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이 엄연히 현존함에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이 사람들에게 대한 심층면접을 체계적으로 시도하

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층면접에서 연구실 상황, 시민사회와의 갈등, 기자들의 대응 전략, 주변부 과학자의 부상(BRIC) 등에 있어 황우석 사태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방법론적으로 기존에 출판된 자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했다. 분명 과학기술학은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선호하며 이를 위한 방법론적 고민이 『신화와 과학』에서 좀 더 필요했다고 본다.

셋째, 이 책은 많은 곳에서 황우석 연구팀에 의한 과학부정행위를 비판하지만 황우석 동맹과 비판세력 사이의 갈등을 묘사할 때에 있어서는 양비론적 입장을 택한다. 황우석, 언론, 정권의 강고한 삼각동맹에 맞서 <PD수첩>/『프리티안』, 시민단체, 민주노동당의 대항적 삼각공조를 묘사하는 부분에서(11장) 『신화와 과학』은 대항적 삼각공조가 논문 조작에 대한 정보독점과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지적한다. 이 부분에 대해 평자도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찰과 논리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항적 삼각동맹이 황우석의 논문 조작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의 태도는 정보독점이라기 보다는 논문 조작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황우석이라는 한국 최고의 권력을 향해 확실한 근거 없이 논문 조작이라는 비판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한학수 PD가 그의 책에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 점이 양비론으로 빠지는 결정적인 귀책사유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발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 비판은 <PD수첩>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다. 권력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공정성을 일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세력에 대해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데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당파성의 공정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황우석 동맹에 대한 비판적이고 당파적인 태도는 황우석 사태와 한국사회를 둘러싼 접점에서 오히려 공정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민세력과 황우석 동맹의 갈등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직접 관여했던 과학기술학자들(STSers)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설명이 차후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평자는 김근배 교수의 『황우석 신화와 대한민국 과학』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첫째, 2005년 황우석 사태는 2008년 광우병 사태와 함께 넓게는 한국사회 좁게는 한국 과학기술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은 너무나 중

요한 사건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과학기술학도(STSer)가 당연히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다. 둘째, 과학의 내부와 외부를 넘나들며 김근배 교수가 보여준 치밀한 분석, 열정, 성실함은 과학기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점들이다. 한 주제에 대한 단행본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이 책은 다른 연구자들에게 지적 자극과 성실함을 보여준 역작이다. 책을 자세히 읽을수록 김근배 교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황우석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인 사건으로 과학기술학에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단행본을냄으로써 김근배 교수는 황우석 사태에 대한 미래 연구와 논쟁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황우석 사태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를 보다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